

예수의 제자 되는 길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 14:26)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자신의 모든 인척관계를 떠나서 그를 미워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제도가 생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승복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더우기 성서에는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권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서의 자체 모순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요청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서에는 이보다 더한 자체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 부모 형제를 미워한다는 일에 못지 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러한 어려운 요청을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의 차원과 초점을 예수 자신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심의 초점

을 가진 마음의 두 가지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든가,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지는 경우가 있고,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남는 것이 있다면 무관심과 냉소뿐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가혹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나와 남 사이에 원수와 같은 관계가 맺어졌다고 한다면, 이 인간관계 사이에 중보자(中保者)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재하지 않으면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수는 어디까지나 원수요, 사랑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깊은 자각에서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나의 부모 형제 사이에, 그리스도의 공의(公義)가 개재될 때에, 비로소 내 부모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님의 의(義)가 개재되지 않고서는 내가 내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딸의 잘못을 개탄하고 음독 자살을 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읽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불륜을 개탄하고 고발하는 자식들의 호소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왜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며, 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과 의가 없는 데서는 사랑과 미움을 단순한 목적적인 관계에서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의(信義)가 없는 데서는 믿음과 의로움이 없는 부모 형제관계는 사실 부모 형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참된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남과 원수의 관계가 된

다는 것도 역시 개인의 이해관계가 감정적인 차원보다 더 중요한 신의, 즉 믿음과 의로움이 없을 때 친구가 원수로 변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인 관계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과 의로움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사랑과 미움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 자기 제자가 되려면 먼저 사랑에 못지 않게 믿음과 의로움으로써 자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의로움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과 의를 사모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부모 형제 곁을 떠나고, 바리새 교인들, 사두개,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교만을 통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들의 세계에 던지시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항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담을 헐으시고, 성전의 장막을 찢으시고, 인간에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증보자이신 예수께서, 나와 내 부모 형제, 그리고 나와 내 이웃 사이에 개입하셔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는 생활인가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분을 하나님과 나와서 증보자로 믿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되는 도리에는 언제나 사랑, 믿음, 그리고 의로움이 따라야 합니다.

(1976. 6. 6. 매니오교회)